

# 국내 국·공립미술관의 미술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레코드 분석 연구

## A Survey Study for Metadata of Art Archives Record Management in Public Art Museum of Korea

조수민,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0118739332@hanmail.net

유소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soyoungyu201@gmail.com

Su-Min Jo, Dept. of Recor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So-Young Yu, Assistant Prof.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

오늘날 미술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 작품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미술기록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기록을 관리하는 업무에 최근 들어 미술계 및 관련 분야에서 아트 아카이브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국·공립미술관의 미술기록관리 현황 및 메타데이터 레코드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술작품 관련 여러 미술기록 대상의 기록관리나 관련 메타데이터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타데이터 요소가 여러 유형의 미술기록을 포함하여 기술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1. 서론

오늘날 특정한 물리적 공간인 미술관을 방문하여 직접 작품을 보지 않아도 미술관 웹사이트와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해 미술관에서 소장·전시 중인 예술 작품도 살펴볼 수 있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미술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 작품 뿐 아니라 관련 정보, 나아가서 소장품 전시 등과 같은 활용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국·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미술기록의 메타데

이터 레코드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미술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미술기록 메타데이터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기반한 필요성 제기와 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인혜, 2012; 류한승, 2012; 박진희, 2005; 신원철, 2006; 김승아, 2012; 최정아, 2001). 그리고 표준화된 미술기록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은 미술관 실무계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기관에서 생성한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Besser (1990)은 “대중을 위한 메타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술기록 정보 검색 도구로서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미술기록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Matusiak(2006)은 동일한 맥락에서 예술 관련 메타데이터의 표준이 필요하며 범위 및 내용 관리를 최적의 검색과 접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Gilliland(2007)는 디지털화된 자원을 링크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통합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역할이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미술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라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김경연, 2012; 황진현 & 임진희, 2012). 실무 현장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내 주요 아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표준적이면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김인혜, 2012; 조윤희, 2013).

### 3. 미술기록 관리 현황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주요 특징

#### 3.1 국내 주요 미술관 미술기록관리 현황

한국 미술계 아카이브 현황은 2012년 김달진 미술 연구소에서 미술 자료실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김달진 미술 연구소에 요청하여 ‘한국 미술계 22개 기관 아카이브 현황(설문조사 답변)’ 자료를 받았으며, 전체 22개의 아카이브 현황 중 5개의 아카이브 현황만 분석하여 이를 재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답변 자료에서 사용된 미술기록 유형의 명칭과 분류는 김달진 미술 연구소에서 제안한 틀이다. 김달진 미술 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재구성한 <표 1>에서 사용되는 일반도서 자료, 비도서 자료, 기관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국·공립미술관 아카이브 현황

기관명	자료유형	비율	주요 자료	비율	기타 자료		비율	비고
					종류	비율		
국립현대 미술관	단행본	75%	팸플릿/ 미술인 자료	66.4%	작품 비디오 및 기관 영상	200여점	도서, 전시 팸플릿 목록 및 검색 기능 제공	
	학위 논문	17.2%	슬라이드	30.9%	작가파일			
	간행물	7.8%	포스터	0.8%	현대미술 주요 작가 자료	2000여점		
서울시립 미술관	간행물	7.8%	비디오테이프 (Beta,VHS,CD,DVD 등)	1.9%	미술관 소장 아카이브 검색 및 이미지 열람서비스	10000여점		
	단행본	95.2%	팸플릿	58.8%	미기입		도서 목록 및 검색 기능 제공	
	학위논문	0.3%	포스터	3.8%				
간행물	4.5%	비디오테이프(DVD) 기타(음악CD)	9.4% 28%					
대전시립 미술관	단행본	80.7%	팸플릿 및 도록	95%	작품 전시 및 영상자료	32.5%	도서 목록 및 검색 기능 제공	
	학위논문				학술 행사/세미나 파일	5.6%		
	간행물	19.3%	영상자료(DVD, VHS 등)	5%	국내외 작가파일	21.8%		
					교육 프로그램	9.8%		
구술 자료	12.3%							
기타	18.0%							
경남도립 미술관	단행본	69.9%	팸플릿	64.7%	학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전시 또는 관련 행사 동영상	86.2%	도서 목록 및 검색 기능 제공	
	학위논문	0.9%	비디오테이프	16.3%				
	간행물	29.2%	기타	19.1%				
부산시립 미술관	단행본	82.4%	미술인 자료	0.2%	작가초상사진	0.9%	도서 목록 및 검색 기능 제공	
	학위논문	1%	포스터	0.5%	작품이미지	94.2%		
			팸플릿	48.4%	구술자료	0.2%		
	간행물	16.6%	리플릿	48.4%	학술행사			
			신문 자료	2.4%	교육프로그램	4.7%		

<표 1>의 한국 국·공립 미술관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의 미술 관련 기록 자료의 소장 자료 내용의 질과 양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자료 분석 결과, 국내 5개 기관은 아트 아카이브 중 소장품 현황을 중심으로 한 아트 아카이브 원자료 수집 및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메타데이터 구축에 최근 들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 아트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최근 들어 아트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기술 지침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2013).

### 3.2 한국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메타데이터 레코드 분석

국내의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소장품이 갖는 메타데이터의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되어 있으며, 각 미술관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소장품 도록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메타데이터 레코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장품 메타데이터 표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시, 메타데이터 요소를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기술 요소로 보았으며, 각 요소에 대한 의미 해석은 각 미술관의 소장품 메타데이터 표준 내에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파악된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리 및 비교는 <표 2>와 같다.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는 총 20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의미적으로 유사한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집산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미술기록을 소장품인 창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기록관리에 사

용되는 메타데이터 요소들도 소장품인 미술작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요소를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작가명과 작가영문명이 그 예이다. 작가명과 작가영문명은 표시 방식에서 언어가 다르므로 기계가독형인 메타데이터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Burnard 등(1996)이 지적한 메타데이터의 단순성이나 형식성을 담보할 수 있다.

<표 2> 한국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메타데이터 레코드 분석

	국립 현대	서울 시립	대전 시립	부산 시립	경남 도립
작성년도	2011	2007	2006	2010	2012
구분					
부분					
관리번호					
작품번호					
분류번호					
작가명					
작가 영문명					
생몰연도					
작품명					
제목					
제작년도					
재료					
재료 및 기법					
규격					
크기					
수집경로					
소장경위					
소장형태					
기중					
페이지					

※ 파란색 : 현재 국·공립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요소  
 ※ 붉은색 :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관리할 때 메타데이터 요소를 하나의 요소로 중첩되어 사용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동일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타데이터 요소 명칭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화된 처리가 힘들고, 기관 간에 메타데이터를

교환하더라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명과 제목은 메타데이터 요소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는 이것이 동일한 메타데이터 요소임을 알기가 어렵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국내 미술관을 중심으로 범위 및 내용 관리 시스템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미술 작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술 작품 뿐 아니라 관련하여 생산된 미술기록을 대상으로 한 메타데이터 구축이 아직 되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 또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미술기록을 포함하여 기술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술 작품을 보존·관리하는 아트 아카이브는 디지털 형식을 통해 웹 사이트에서 일반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국·공립 미술관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의 레코드 분석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작품 관련 여러 미술기록 대상의 기록 관리나 관련 메타데이터 구축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타데이터 요소가 여러 유형의 미술기록을 포함하여 기술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아트 아카이브에서 미술작품과 미술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연계하는 방법을 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cknowledgement

이 학술발표 논문은 조수민의 2015년도 석사 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 정리하였음.

#### 참고문헌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201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지침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분류, 정리, 기술 지침 v.2.
- 김달진. (2012).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분포 상황 및 수집 여건과 과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41-282.
- 김경연 (2012). 아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미술기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승아. (2012). 국내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표준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예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139-159.
- 김인혜. (2012).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아카이 운영 구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301-310.
- 류한승. (2012). 소장품 관리 및 보존 연구 : 미술관의 미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관련 제 논의.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4(2), 90-101.
- 박진희. (2005). 미국의 기록물 기술 내용 표준에 대한 비교분석: APPM2와 DACS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4) 129-151.
- 신원철. (2006). [Issue#4] '미술 아카이브+ 온라인 시장'. *미술세계*, 6(259), 56-56.
- 조윤희. (2013). 문화 콘텐츠 통합을 위한 메타데이터 포맷 연구(II):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01-219.
- 조수민. (2015). 기능 영역 기반 미술기록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에 관한 연구: 대전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최정아. (2001). 미술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진현 & 임진희. (2012).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 설계: KS X ISO 23081 다중 엔티티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3, 155-206.
- Burnard et al., (1996). A Syntax for Dublin Core Metadata: Recommendations from the Second Metadata Workshop.  
<<http://users.ox.ac.uk/~lou/wip/metadata.syntax.html>>